

한총련 2기 조선대서 출범

행사 마지막날 광주시민대회 참가 예정

제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김원준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미국반대와 김영삼 타도'의 자양탄 성전에서 통일조국 건설로 내달리는 청춘을 승화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동안 조선대학교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먼저 전체 일정을 살펴보면 27일에는 오후 6시에 속소를 폐회하고, 8시부터 전야제 행사를 한다. 28일에는 오후 6시에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출범식, 7시 조국통일위원회 출범식, 8시 2기 한총련 출범식 등이 있고 29일에는 가두 행진을 한 뒤 광주시민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출범식을 정리하게 된다.

한총련은 83년도에 한총련 총회로가 '생활·학문·복합의 공동체 구현과 진정한 국민 생활'이었다고 평하고 그 후의 총회로는 '민주주의와 애국주의'의 이름 아래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본체로 오르는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정세를 '국제적으로서는 비제국주의가 패권적 지위를 보장받고 국내적으로는 친 미국화가 진행되는 편'이라고 단정했다. 그에 대해 한총련은 정치적 기조로 '미국을 반대하고 김영삼정권 타도 부정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는 것과 조직적 기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장전 수립을 목표로 애국·민주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일치 단결하고 이를 위해 한총련은 선봉대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을 내세웠다.

한편 이러한 한총련의 좌표에 대해 '정보를 향한 도약을 위한 한총련 개혁'이라는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대의원대회 도중 집단 표결하는 것으로 반대파를 표명하기도 했

이들은 먼저 한총련 조직이 비공격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한총련이 '지도이념'을 가지고 상명하달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와 연방제'라는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만은 천만 속에서 21세기를 건설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전보시대 개혁'을 모

집했다. '전보시대 개혁'은 26일 광복절 한총련 출범식 참가 결의대회를 가진 후 조선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혁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이 연례에 비해 눈에 띄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을 두고 학생운동의 흐름이라고 평가들은 한다. 하지만 그동안 생각을 달리하는 학생회와 한총련간의 상호 비협조적인 모습들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

아래기도 한다.

밝은사회클럽 대회

밝은사회클럽 국제대회가 지난 21일 4시 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20여개국의 대



◆...연예인공연 등 '구경하는 행사'는 유난히 밝았던 편. 대중에 참가자가 거의 없어 썰렁했던 국제대학생포럼회장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송원주 기자)

취업대책 논의 활발해 질 듯

수원 3자협의체 정기 간담회 갖기로

취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실과 취업정

보실, 총학생회 사회진출준비위

원회(이하 사준위)로 구성된 3

자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이에 지난 4월 등록금 협상

에서 합의된 바 있는 취업정보

재학생 대상 부당처우시정위 조직

교수,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될 듯

우리학교는 교육·행정 등에

서 발생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시정

하기 위해 '부당처우시정위원

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우리학교에 제

하고 있는 학생이 ▲교수의

불공정한 성적평가 ▲학령제

미래의 경회 / 함께 열거하는 "재안 21c"

본교는 대학발전을 위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이를 학교의 정책결정과 운용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사상 처음으로 대학발전 제안 청취통신제도(Ombudsman)를 처음으로 같이 실시합니다. 모든 경회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제안내용:** 대학발전을 위한 의식과 제도의 개혁, 환경개선 등 제한 없음.
- 제안방법:** 제안내용을 FAX로 송신. FAX (02)961-0100. 단, 실명의 제안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 획 관 리 실

발생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불이익 등의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중재·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재학생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반드시 소정양식의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여부를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이성호(경대대·회계학)교수는 '학생들이 평소에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제거하여 시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우리학교 전임교원이,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펑교수 중 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2명으로 할 예정이다.

대중문화공간 여전히 태부족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캠퍼스에서는 대학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동문화제가 열린다. 각 학과별 동아리별로 기획하는 전시, 공연의 준비작업으로 구슬방을 둘러본 듯하게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요즘들어 무척 많았다. 지난주부터 캠퍼스안을 뒤덮은 볼레카드와 대동문화제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통지에 몸과 마음으로 만끽하게 될 대동문화제를 기대하게 한다.

▼동아리들은 이번 대동문화제를 열을 겨냥하여 강도높은 연습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연습들은 밤을 새도록 계속되지만 미련없이 각 동아리별로 방송사들이 전하 갖추

어지지 않아 사회대와 산업대에서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인근 민가 및 뒷 동이리들에서 소음과 불쾌감을 느끼는 등 불만도 없는 실정이다. 대동문화제 준비기간 중 공연 동아리들은 노래는 물론이고 문예공연은 공연장내와 장소소음 등의 전제적인 준비를 하기에 동행과 학교의 배려가 아쉽다는 것이다. 이들 동아리들은 대동문화제 개막한 5월 둘째주부터 피아노 대동제 일정을 통보받은 수 있어 공연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공연장소가 넉넉지 못한 수원캠퍼스에서 장소소음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관객유치 등의 전반적인 공연기획 수립도 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공간의 부족문제는 한두번쯤 공연을 해본 동아리들만 누구나 느꼈던 문제인 것이고 방송배설성의 경우 동아리에 국한되지 않는 경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가장 큰 연중행사인 대동문화제를 치루면서 각 공연단체 리듬에 제 치밀한 사전검열이 좀 더 엄격 알려졌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어떤 볼 대동문화제의 총합인 연극과 의욕한 무대에서 좀 더 융통하게 꾸며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정 기자)

전대기원 광고-한총련 출범식

한총련 출범식

두 걸음을 뚝딛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한총련의 그 힘찬 2 번째 걸음을 뚝딛는다

"자랑한 전대원 선배들의 발자취를 이어 당당한 삶을 이어가고 노력하며 실천하는 한총련 백만 애국자 모두를 한총련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창조의 시절은 가장 고귀하고 힘차게 아름답고 합니다. 인생에 단 한번 있다는 창조의 시절이 가장 고귀하고 힘차게 아름다운 것 무엇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피를 '애국열정' 때문입니다

그 애국의 함성이 만드 풍산 하로 울려 퍼지는 광장이 있습니다. 혁명 광주 민족 조선대에서 열려 한총련 출범식이 바로 그 광장입니다.

창원이 살아간 바 5월27일부터 29일까지 빛을 오호의 하늘아래 창조의 만민으로 애국의 인연을 만듭니다.

오지 바론 깊은 정리의용이다 국민 청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이름으로 만나다 조국통일의 불꽃을 태고 아스팔트를 두들긴 서적대에서 백두산 천지를 만나다

제 2기 한총련의장 김원준(부산대 총학생회장)